

01 교회소식

감사의 열매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향을 올려 드린 추수감사주일 예배 및 온라인 성찬식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으로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법사에 감사로 심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03 기획특집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 창립 20주년

은혜로 충만했던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예배 축하공연 소식과 성도들의 은혜로운 간증.

04 간증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19년 된 간질을 치료받은 인도 단팻 성도와 참된 진리를 깨닫고 파상풍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은 최영숙 집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933호 2020년 11월 2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추수감사주일 예배 및 온라인으로 성찬식 가져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15일, 감사예배 및 성찬식을 거행했다. 대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섭리’(시 50:23)라는 제목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설교가 있었으며, 랜선예배로 진행된 저녁예배 시에는 원로회 의장 주현권 목사가 ‘감사를 잊어버린 자와 감사하는 자’(시 50:22-23 ; 요 6:53-55)라는 말씀을 전한 후 성찬식을 집례했다.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우리 교회는 물론 랜선예배에 동참한 해외 18개국 48곳을 비롯한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각자 준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성찬식에 임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크신 은혜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 추수감사절 단 장식은 곡물 32종, 과일 22종, 채소류 외 34종 총 88종으로 올려졌다. 단 장식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단 장식은 여선교회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시설관리국 등 성도들의 봉사와 찬조로 이뤄졌다.



### 태국 방콕만민농아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11월 8일, 22개국의 만민 농아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태국 방콕만민농아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날 기념 예배는 랜선예배로 진행된 만민중앙교회 저녁예배로 드렸으며, 이후 2부에는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은 태국 핫야이만민농아교회 함미드 형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태국 방콕만민농아교회 일꾼들과 핫야이만민농아교회 일꾼들의 특송이 있었다. 이 밖에도 중국, 말레이시아 만민 농아 일꾼들

과 만민중앙교회 가나안선교회 일꾼들의 수화특송 영상, 지난해 태국 방콕을 직접 방문하여 농아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 이성철 목사와 임학영 목사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다.

한편, 태국 방콕만민농아교회 특송팀 중 시와풍 형제(27세)는 올해 1월 은사집회 때 처음으로 귀가 열렸으며, 이번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때에는 녹화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더 잘 들리기 시작했다.

사라윗 형제(22세)도 2019~2020 송구

영신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석해 축복기도를 받은 후 귀가 열려 점차 좋아지다가 이번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시 녹화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

이 땅에서 무엇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며 또 심은 만큼 결실을 얻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영계의 법칙입니다(갈 6:7).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심고 거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으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지요.

더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이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좋은 것으로 풍성히 거두려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거나 물질을 심을 때에 억지로 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심고 나서는 ‘나는 왜 축복을 안 주시지?’ 하며 불평하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심은 것은 온전한 열매로 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의 증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향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며 기도와 금식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지만 그 행함 속에 감사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이 나오되지 않기 위한 힘든 시간이었고, 주어진 사명은 감당해야 하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향을 받으시므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심는다 해도 감사함으로 심는 것과 힘들게 억지로 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곧 마음의 향에

따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다르므로 주어지는 응답과 열매가 다르며, 천국에서도 그 처소와 영광의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향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 2. 좋은 것으로 풍성히 거두려면,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땅에 뿌린 씨가 싹이 내려면 일정한 기한이 있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루, 이틀 지난 뒤에 ‘왜 이렇게 싹이 안 나지?’ 하며 파헤쳐 본다면 오히려 씨를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씨의 종류에 따라 열매를 거두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참외나 수박은 1년이 안 되어 열매를 맺지만, 사과나 배는 수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인삼 같은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확했을 때는 그만큼 기쁨이 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은 후에도 금방 응답받아 열매를 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씨를 잘 심어 놓고 때를 기다리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때가 아닌데 자기 생각을 동원해 성급하게 어떤 일을 행함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든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칠십오 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얻은 것은 그로부터 25년이나 지난 백 세가 되어서였지요. 바로 본처인 사 را를 통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야곱 역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20년간이나 외삼촌 밑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인도해 주셨지요. 모세는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으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도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어 놓고 금방 열매가 안 나오면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한다든가, 때로는 입술로 헐어 버리는 말을 한다면 이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을 동원해 나감으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게 되므로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지혜로워 보여도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므로 현재만 가지고 앞일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한 것 같아도 만사가 형통하게 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때를 기다리라고 하니까 무작정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마음 문을 열어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하지요. 내가 앞서서 내 생각대로 일을 이루고 내 힘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문제를 놓고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면 분명히 때가 이르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크기에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신 후 응답해 주시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연단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업 수완이 뛰어나도록 만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시며,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을 필요에 따라 보내 주셔서 여러 가지로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먼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잡념을 없애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하는 만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 후 때가 이르매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성전을 이루고 세계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일을 이루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여 조급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도울 자를 예비하시며 여러분이 움직여야 할 때를 알려 주십니다. 이렇게 명령께서 주관하심에 순종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 3. 좋은 것으로 풍성히 거두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는 어떤 열매를 내었든지 간에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이방에 널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한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자기를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 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후에도 항상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녕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매 순간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만이 열매를 거두는 보람을 맛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심으면 그 충성과 헌신, 기도와 전도 등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응답과 축복, 건강과 지혜와 영광을 얻으며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심어 이 땅의 삶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날에 기뻐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11월 1일 주일 저녁예배 시,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가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1부 기념 예배 시 담임 정경태 목사는 '신앙의 여정' (신 8:2-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축하공연은 와다나베 아스카 자매와 와다나베 에리나 자매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후 가츠요시 형제, 정수정 자매, 권사팀, 남성팀,

크리스탈 워십팀이 특송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추억의 영상을 시청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다.

한편, 권사팀 멤버들은 하나님 권능으로 자궁경부암을 치료받은 에노모토 준코 권사를 비롯하여 대상포진을 치료받은 쯔쯔꾸 기요코 권사, 물질의 축복을 받은 나가시마 게이코 권사 등 다양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나가시마 게이코 권사



최근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남편과 저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빌린 토지가 20년이 되어 재계약을 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210만 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엔 밖에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지요.

이에 대해 담임목사님에게 말씀드리니 선하게 해야 할 것과 그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며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이 80만 엔을 도와주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돕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믿음을 갖고 토지 주인을 만나러 갔는데, 제 말을 들은 주인은 매우 놀라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총 210만 엔 중 90만 엔을 제외한 120만 엔을 20년 동안 매달 5천 엔씩 분할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대로만 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록 세세하게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신앙생활이 아주 즐겁습니다”

쯔쯔꾸 기요코 권사



저는 천국으로 저를 잘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경타바타만민교회에 인도받아 이곳에서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제 삶은 변화되었지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로 대상포진을 치료받았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발목이 빠져 심했던 통증이 그 즉시 사라졌지요.

이처럼 성경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선'과 '천국' 설교를 통해 아름다운 선의 마음에 대한 사모함과 천국의 소망이 더욱 커져 매우 행복합니다.

2001년 제계 간질 증세가 시작됐습니다. 주로 잠을 잘 때 경련과 발작 증세가 있었고, 하루에 6~7차례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증상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제 머리에 폭탄을 집어넣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떤 날은 발작하다 혀를 깨물어 입에서 피가 흘렀지요. 상처로 인해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온몸에 심한 통증과 열병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가족은 지쳐갔습니다.

여러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어 인도 전통 약초를 사용해 보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이내 발작이 일어났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매일 약을 먹어야 했지요.

그러던 2016년 친구의 소개로 텔리만민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저는 계속해서 텔리만민교회에 다니면서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치

## “19년 된 간질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단팻 성도 (40세, 인도 텔리만민교회, 사진 맨 왼쪽)

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약을 중단해 보기도 했지만, 며칠 뒤 상태가 나빠져 다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 달 뒤 텔리만민교회 창립 기념 예배에 이미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치료 받기 위해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다시 약을 중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교회 창립 예배 준비를 도우며 행복하게 봉사했지요.

마침내 11월 초, 창립 7주년 기념 예배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 날 감사님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이후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증세가 깨끗이 사라져 지금까지 발작과 경련이 한 번도 없었으며 약도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벽하

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삶은 만민으로 인해 변화됐습니다. 저는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들으며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희 가정은 행복을 되찾았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다 가위에 손을 벤 뒤 파상풍을 얻어 16년간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몸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치료할 수 없었고 게다가 알레르기성 비염과 허리 통증, 위장장애도 있었지요.

한편으로는 ‘여호와증인’에 몸담고 열심을 내며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토론하면 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2003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민중앙교회에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봤던 교회들은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만민중앙교회는 성전이 밝고 성도들의 표정도 무척 밝아 놀랐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쉽게 이해되면서 들을수록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31년간 ‘여호와증인’에서 배웠던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었다면 당회장님의 설교는 영혼이 잘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몸소 실천하시니 매우 놀라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처음 참석한 저는 수많은 성도가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니 통회자

## “치료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최영숙 집사 (68세, 2대대 16교구)



복이 나와 한 시간을 영영 울며 기도했는데 그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물로 싹 씻기는 느낌이 들었지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상풍을 비롯한 모든 아픈 증세가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이후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듬해부터는 구역장 사명도 감당하였지요.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차례 체험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던 지인이 기도 받고 일어났고, 위독하셨던 친정어머니가 기도 받고 회생하셨으며 사고로 손을 다친 분, 갈비뼈가 부러진 분, 허리디스크로 고통받는 분이 치료되어 영광 돌렸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더욱 믿음의 확신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시간을 쪼개 공부하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상담심리학 학사학위도 땀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레 포기 않았으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저의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범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릉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